

부활의 참된 의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실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혹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일 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1. 부활은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롬 6:23). 주님은 이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인하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게 됩니다(고전 15:22).

죄인의 사망은 몸의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대부분 육의 죽음을 겪는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20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믿다가 육의 수명이 다해 장사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맞는 성도들보다 앞서 부활합니다. 죽어 장사되었던 몸이 신령한 부활체로 변해 영혼과 결합하는 것입니다(살전 4:16).

그 후에는 살아서 주를 맞는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육의 죽음을 겪지 않은 성도들은 홀연히 영원히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살전 4:17).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육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당회장 이재록 목사

2. 부활은 '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참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기에 사망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죄도 없으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이 되었고, 죄인인 아담에게서 난 모든 후손들 또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만세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자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죄인들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라도, 독생자를 희생시켜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섭리를 두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이루심으로 그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13).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3. 부활은 '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믿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애매히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하나님께 외면당해 철저히 혼자가 되시기도 했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헛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날마다 죄를 벗어나 성결을 이루기 위해 힘듭니다. 또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 사랑이 참 사랑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참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지요. 이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단신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자선 콘서트' 열려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자선 콘서트'가 지난 4월 16일, 이다만민교회(담임 유승길 목사)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만민데이서비스 미츠바사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는 세계를 무대로 순회 공연하는 일본 전통 북 '토카리' 팀이 출연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다만민교회에서는 가네다 료코 자매와 트리니티 팀과 가스펠 팀의 찬양과 메이 & 가나 팀의 찬양과 무용, 마즈다 에리나 자매의 독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24일에는 부활절을 맞아 이다만민교회 주관으로 '가자코시 어린이 숲 공원에서 '어린이 부활절 콘서트 및 계란 나누기 행사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에서 '십자가의 도' 세미나 열려

'십자가의 도' 세미나가 지난 3월 27일부터 9일간 카자흐스탄 바이카누르 지역에서 열렸다. 우리 교회 부설 MIS(만민국제신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스웨일 자매가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으며 참석자들은 그 동안 듣지 못한 깊은 영적인 말씀에 놀라워했다. 세미나 후 열린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서는 굴라지나 자매(17세)가 척추골절로 인한 요통을 치료받는 등 화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포토뉴스



2011년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지난 4월 17일 저녁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선'(요일 1:5)이라는 제목으로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익을 구해주며, 질서 속에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마음에 이루어 영광 돌릴 것"을 당부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5536, 5615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